

# 북

## 행복이란 삶에 만족하고 꿈에 도전하는 것

### Books

#### 참 아름다운 당신 도종환 외 지음



스물네 살인 김민지씨의 한 달 수입은 20만원이다. 극영화 연출부 박내인 그녀는 “그래도 영화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 제 이름 섞 자가 뜨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라며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행복의 기준은 뭘까?

소설가와 시인들이 평범한 이웃을 소개하는 에세이 ‘참 아름다운 당신’에는 물질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 삶의 잔잔한 행복을 전해준다.

동화작가 김중미, 소설가 박정애, 송영, 이기호, 이명랑, 이병천, 전성태, 한상준, 시인 복효근, 정우영, 최명완 등 문인 11명이 각자 자신의 이웃들을 소개한다.

이들의 글에 등장하는 이웃은 동네와 일터,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옮은 마음과 삶을 향한 깊은 의지를 품고 북돋우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하다.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소설가 이기호씨가 소개하는 김민지씨는 조금은 당돌하다. 그녀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영화 촬영 현장을 택했다. 촬영에 필요하다면 가로수를 걱정해 나무 총을 만드는 열정을 발휘한다. 화장실에 숨어 우는 날이 이어졌으나 영화 엔딩 자막이 올라갈 때의 환희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한다.

이씨는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에 우리 생을 내주었나”라고 물으며 “김민지 씨는 그것을 부정하고 당당히 자신의 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이명랑씨가 소개하는 동네 떡볶이 아줌마는 주민들의 스타이다. 그녀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자마자 10분 만에 아파트 단지 아줌마들이 일제히 물려줄 정도이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아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다운증후군을 앓는 아들을 흘려 키우는 아픔을 간직했다. 아줌마는 한때 “왜 하필이면 내가”라는 말을 달고 살았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이 됐다.

이씨는 “남들이 보기에는 벼려진 돼지 창자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그 안에 기쁨과 희망과 운기를 집어넣어 자신의 삶뿐 아니라 남의 삶도 풍성하게



신간 ‘참 아름다운 당신’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웃들의 행복을 담아냈다. 사진은 꿈을 꾸는 두 청춘의 일상을 담은 영화 ‘발레 교습소’(2004년)의 한 장면.

해주는 떡볶이 아줌마를 ‘순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 이웃들의 이야기에는 곽곽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진짜 삶과 행복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기 때문이다.

김중미씨는 ‘만식동 천연기념물, 프로스공 고경순’을 통해 ‘정직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그렸다.

김씨는 “선아 엄마는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된다면 아무 일이나 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선아 엄마는 사람이 하는 일을 정직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로 나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느니 차라리 굽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세계 명문 가문

#### 가훈·역사 소개



기자 출신으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흥순도(51)씨가 세계 명문 가문과 역사 소개한 ‘명가의 탄생’을 출간했다.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와 미국 록펠러 가문, 일본 최고 기업인 마쓰시타 가문, 존경받는 부자가 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간송 전형필 선생, 동양인으로서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지휘자 정명훈 가문,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를 키운 빌 게이츠 가문 등 위인 23명 가문의 삶과 비전을 담았다.

흔들의 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다.〈서교출판사·1만2천500원〉/김대경기자 bigkim@kwangju.co.kr

### 좋은 이별

#### 김형경 지음



소설가 김형경이 펴낸 ‘사람 풍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분명 그 책에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심리여행에 세이인 이 책은 그녀가 자신의 삶과 치료 경험과 치료를

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를 받고, 해결책을 조금씩 모색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또 다른 심리에세이 ‘천개의 공감’을 통해 많은 이들을 위로했던 김씨가 세번째 심리에세이 ‘좋은 이별’-김형경에도 심리에세이’를 펴냈다.

기존의 책이 시기·불안·불안·자기애 등 인간 마음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를 담았다면 이번 책은 ‘상실과 애도’를 테마로 삼았다. 개인적·사회적 병리의 모든 원인은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대상을 상실한 후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고 믿기 때문이다.

책은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장에서는 애도라는 개념이 언제 태어나,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에는 소중한 대

상을 잃은 후에도 열정이 여전히 상대를 향해 흘러가는 상태, 상대로부터 열정을 회수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단계, 열정을 비로소 치유와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단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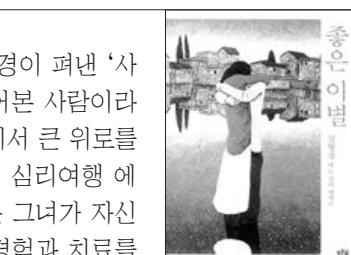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동전처럼 죽음을 손꼽에서 만지작거리는 느낌의 20대를 보낸’ 저자 자신의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주변인들이 겪는 이별의 상처 등 사례들이 풍성해 읽는 이가 쉽게 감정이입된다.

또 ‘좀머씨 이야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나의 투정’, ‘이방인’, ‘자기앞의 생’, ‘부시의 정신분석’, ‘애도의 정치학’ 다양한 장르의 책에 등장하는 이별과 그 애도 과정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푸른숲·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감정 제대로 처리 못한데서 병리 원인 짹튼다

### 김형경 지음



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를 받고, 해결책을 조금씩 모색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또 다른 심리에세이 ‘천개의 공감’을 통해 많은 이들을 위로했던 김씨가 세번째 심리에세이 ‘좋은 이별’-김형경에도 심리에세이’를 펴냈다.

기존의 책이 시기·불안·불안·자기애 등 인간 마음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를 담았다면 이번 책은 ‘상실과 애도’를 테마로 삼았다. 개인적·사회적 병리의 모든 원인은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대상을 상실한 후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고 믿기 때문이다.

책은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장에서는 애도라는 개념이 언제 태어나,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에는 소중한 대

상을 잃은 후에도 열정이 여전히 상대를 향해 흘러가는 상태, 상대로부터 열정을 회수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단계, 열정을 비로소 치유와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단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동전처럼 죽음을 손꼽에서 만지작거리는 느낌의 20대를 보낸’ 저자 자신의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주변인들이 겪는 이별의 상처 등 사례들이 풍성해 읽는 이가 쉽게 감정이입된다.

또 ‘좀머씨 이야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나의 투정’, ‘이방인’, ‘자기앞의 생’, ‘부시의 정신분석’, ‘애도의 정치학’ 다양한 장르의 책에 등장하는 이별과 그 애도 과정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푸른숲·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모자란 남자들= 추리소설 ‘생물과 무생물사’의 저자 후쿠오카 신이치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과학에세이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신화를 뒤엎는 ‘발칙한 상상’이 펼쳐진다. 지구상에 생물체가 출현한 이후 10억년 간 모든 개체의 성은 암컷이었으며 수컷은 철저히 번식과 생존에 필요했기에 덤으로 생겨났다는 논리가 풀려하고 〈은행나루·1만3천원〉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조선일보 기자로 있는 과아람씨의 조금 긴 제목의 독서에세이. ‘그리고 책과 함께 만난 그림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책 속의 인상적인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다 거기에 걸맞은 그림들을 대입해 독서의 여운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문학의 눈을 통해 하는, 한층 더 풍요로운 그림 감상으로, 일상에 색다른 시각을 더하는 책이다. 〈아트박스·1만4천원〉



▲독도, 시를 쓰다=한국시인협회와 독도지회 시인들이 문학으로 국토 사랑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올해 9월 독도와 울릉도를 찾아 노래했던 시들을 모아 엮은 시집이다. 시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국토의 맛’으로 보는가 하면 한없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나라를 싣고 날아오르는 큰 새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황금알·1만원〉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될 사람들에게=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시인 최영미 씨의 산문집. 2000년에 나온 책의 개정판으로 당시 나온 산문집에서 몇몇 글을 골라 뽑아 수정했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표제한 에세이를 더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과 그 속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학동네·1만1천원〉



▲사랑은 여행하는 시간=작가이자 배우이며 영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감독이기도 한 베르나르 지로도의 자전적 소설. 사랑이란 감정의 빛과 어둠을 섬세하게 풀어썼다.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지는 소설 속 인물들의 내밀한 사랑이 한껏 빛을 발한다. 명확하면서도 강렬한 시선과 날것처럼 생생하면서도 시적인 문장이 돋보인다. 〈얼림원·1만3천원〉



▲나는 마사이족이다=1999년부터 아프리카 땅을 밟기 시작한 사진작가 안영상씨. 그는 케냐 남서부에 있는 나루의 마사이 마을로 찾아가 로뮤냑(행운)이라는 이름을 얻고 마사이족 가족이 됐다. 그가 10년간 아프리카를 오가며 최초의 ‘사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엮은 책이다.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이 사진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지며 글은 우주를 담은 대서사시가 된다. 〈멘토프레스·1만4천원〉



▲시조짓기 교실=‘한국인이면 시조 짓기를 생활화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며 생활을 시조 한가지에 전념해온 사봉 장순하(81)씨의 시조 짓기 안내서다. 1장 ‘시조 짓기’에서는 시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시조 짓기 이론과 요령을 해설했으며 2장 ‘시조짓기의 실제’에서는 그간 시조 짓기 지도 내용과 실제 상황을 제시했다. 저자의 등단 시조 작품들도 실렸다. 〈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1만8천원〉

## 수완 메디컬 센터

- 1층 약국 \*외환은행 입점 확정 (2010년 2월)
- 2층 내과, 소아과 등
- 3층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
- 4층 피부과, 비뇨기과, 외과 등
- 5층 정형외과 등

▶ 병·의원 전문 빌딩, 임대  
▶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 각종 155평(분할 가능)

사/원/모/집  
남·여 0명 (\* 20대 후반~ 30대 초반)  
기본급+성과급  
부동산 관련학과 졸, 이력서 지참

\* 분양문의 \*  
(유)코리아랜드컨설팅  
☎ 959-1033, 010-7723-1033

##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웹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부,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빼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증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뒷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이 있는 우량건물을 추천합니다.

국민시행사 대표전화 010-7570-7525

국민시행사/상가 대표전화 010-4640-2142

공장/토지 대표전화 010-5879-0005

국민시행사/월권 대표전화 010-7570-7525

국민시행사/상가 대표전화 010-4640-2142

공장/토지 대표전화 010-5879-0005

국민시행사/월권 대표전화 010-7570-7525

국민시행사/상가 대표전화 010-4640-2142</p